

민주-평화 '텃밭 주인' 놓고 대결

광주 서구 갑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학생운동권 출신 386세대인 송 후보와 국회전문가로 꼽히는 김 후보간 맞대결은 후보 간 대결도 대결이지만, 민주당과 평화당 간 자존심 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에 완패한데 대한 설욕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 이번 재선거를 통해 광주에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실정이다. 평화당 또한 텃밭인 광주에서 '광주·전남 제1당'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송 후보는 광주의 대표적인 학생운동권 출신인 '386 세대'로 꼽힌다. 서울퍼말던 군부독재 시절 전남대 학생회장 겸 제4기 전대협 의장을 지낸 학생운동 리더였다. 당시 지방대학 출신 첫 전대협 의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탓에 송 후보는 시국 전과 2건을 비롯해 모두 4건의 전과가 있다. 전대협 의장 시절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5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1999년 특별사면 복권됐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시국 전과'도 2건이 있다. 나머지 두 건은 음주운전(벌금 300만원)과 사기(벌금 500만원)다.

송 후보는 한국공공데이터센터 소장, 전남과학대 객원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 등 사회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2000년부터 3차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하지만, 두 차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모두 낙선했고,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지만, 국민의당 녹색돌풍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과거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송 후보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등은 이미 국회에 입성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갑석 (51·민주당)	김명진 (54·민주평화당)	
직업	정당인	정당인	
재산	1억2765만원	7억4827만원	
병역	미필(소집면제, 수형)	병역필	
전과	4건(집시법·국보법·음주운전·사기)	없음	

민주 송갑석 대 평화당 김명진 양자대결

당 대 당 자존심 건 한판 승부 될 듯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선거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당원과 바다 민심을 다져오는 등 '와신상담'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22년 동안 여·야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회, 공기업 등에서 활동하며 국정 전반을 경험한 국회 전문가로 꼽힌다. 또한, 당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특보 등을 6번 역임하며 예산과 법안, 정책업무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DJ 특보단 간사, DJ비서실 행정관, DJ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을 지내는 등 DJ와 인연이 각별하고 깊다. 옛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DJ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의 비서실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는 이 때문에 '깨끗한 능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바다 표심을 다지고 있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도전 역정도 파란만장하다. 광주 광산을, 남구에 이어 서구 갑은 3번째 도전이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섰으나, 중앙당의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으로 완주해 실패했다. 2016년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남구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경선과정에서 컷오프돼 본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당당히 통과해 본선에 오르게 됐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서 'you can do'를 사용 중인 김 후보는 "일당 독주는 필연적으로 오만을 낳을 수 있다"며 "호남 민생 쟁기는 광주의 대변인"을 슬로건으로 민주당에 맞선 평화당 바람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유권자 12만명에 투표율을 50%로 가정하면 3만표 수준에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과 이로 인한 '원팀 붕괴'와 일부 지지층 이탈, 송 후보의 음주운전과 사기 전과, 평화당의 한 자릿수 지지율과 김 후보의 인지도 등이 변수이자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는 "광주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 배출돼 문재인 정부와 호남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선거 다음날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전국적 정당 지지도와 상관 없이 인물을 보고 찍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서삼석-이윤석 세번째 리턴매치

영암·무안·신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와 민주평화당 이윤석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다.

고향과 나이, 정치역정까지 비슷한 두 정치인 간 맞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지율의 높은데다 무안과 신안, 영암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서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평화당이 후보의 조직도 만만치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두 후보는 지역에서는 정치 라이벌로 꼽힌다. 서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1959년 생과 1960년생으로 모두 무안출신이다.

두 후보 모두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과기록은 평화당 이 후보가 1건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 후보와 이 후보는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으며, 1995년부터 제5대와 제6대 전남도의원을 같이 지냈다. 이후 서 후보는 재선 도의원을 지낸 후 무안군수에 도전, 당선돼 내리 3선에 성공했고, 이 후보는 도의원 3선을 지낸 뒤 제18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행보가 같았다.

이들의 맞대결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결과는 1승1패이다. 무승부인 셈이다.

지난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후보가 승리했다.

반면 서 후보는 2016년 실시된 이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4년 패배를 설욕하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리턴매치로 치러진 경선에서 서 후보는 58.80%를 득표해 41.20%에 그친 이 후보를 제치고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경선에 승리한 서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불어닥친 국민의당 돌풍 속에서도 국

	서삼석 (58·민주당)	이윤석 (58·민주평화당)	
직업	정당인	동신대 객원교수	
재산	11억7269만원	9억9576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필	
전과	전과 없음	특가법(뇌물수수)	

민주당 지지율 대 평화당 조직력 싸움

농촌·도시지역 표심 어디로 쏠릴지 관심

민의당 후보였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대결을 펼쳐 38.49%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3.23%차이로 석패했다. 서 후보는 당시 고향인 무안을 비롯한 영암과 신안에서도 고른 득표율을 보인 점이 이번 선거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 후보는 특히 20대 총선에서 낙마했지만,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그동안 지역을 꾸준히 관리해온데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원, 중앙선거위원회 특보단을 맡아 활발한 선거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는 물론 지지세력도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는 전남지역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문화, 정보 불균형 문제 적극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입법화, 농어촌·섬사람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확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과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서는 이 후보는 '예산의 달인, 일할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영암을 제외한,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 내리 재선을 지낸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지지세가 아직도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섬이 많은 특수성을 가진 신안군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같은 당 박지원 전 대표의 지원과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평화당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조배숙 당 대표를 비롯한 권노갑·박양수·이훈평·정대철 등 동료동계 고문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이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확보를 하는 등 능력을 검증받은 후보인 만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 간 양당 사이에서 균형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이윤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민주당을 탈당해 신생 정당인 기독교자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고 당적을 옮기면서 정치역정에 큰 오점을 남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첫 AI방역체계 개선대책 세운다

전남도가 해마다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역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전남도는 28일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매년 AI가 발생하는 추세에 맞춰 사육과 방역 과정에 비효율적인 관행과 제도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다. 개선대책 연구는 전국 처음이다.

용역은 국내 유일 기금 전문 연구기관인 반석LTC가 맡는다. 이 기관은 AI 발생 농가·연도별 원인을 분석하고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축사 시설을 개선해 사육환경을 바꾸는 방안을 연구한다.

AI 예방을 위한 선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발생 추세

를 반영해 방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AI 검사, 입식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 오리사육 휴지기, 계절별 수급 분석을 통해 사육량 조절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칠새도래지 주변과 전국 오리 사육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나주·영암 등 밀집 지역의 축사를 다른 지역으로 분

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AI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겠다"며 "농가와 일선 사·군의 건의 사항 등도 수렴해 방역 개선 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2003년부터 지난겨울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AI 193건이 발생해 158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집계됐다.

박경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지능형 전력망계 구축 대상자 모집

광주시는 '지능형 전력망계(AMI) 인프라 구축 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고압 전기를 받는 공동주택 중 3400여 가구를 모집하며 6월 7일까지 입주자대표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이 사업은 노후화된 기계식 전력망계를 스마트 전력망계(AMI)로 교체하고 아파트에 원격검침을 위한 서버(EMS)를 설치하는 프로그

램이다

가정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나 휴대전화로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전기요금 알람기능이 있어 누진요금제 적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높은 단계로 진입 전에 합리적인 전기 사용으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8년도 광주문화신탁

예금특판 행사 + 행복이벤트

파워예탁금 **2.5%**

예금특판 1년

행복이벤트 1등 참여행권 1인2매...1명

추첨: 2018년 8월 3일 |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7월 31일

발표: 2018년 8월 6일

2등 LG트롬건조기...2명 | 3등 다이슨 무선청소기...3명 | 4등 쿠쿠전기밥솥...10명 | 5등 테팔프라이팬...100명 | 6등 밀폐용기세트...300명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타기관 대출을 하나로 묶는 **문화신탁 통합대출 서비스**

태양광발전소 대출(솔라론)

시설자금대출 최대 **80%**
운영자금대출 최대 **70%**
대출기간 최대 **20년**

건축시설자금대출

건축비 최대 **80%** 까지
(표준단가표에 의한 건축비 내)
공정율에 의한 기성금 지급(직불)

신용대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직장인 | 지영업

직업기준 신용대출, 골드카드 신용대출 등 | 예월 평균 카드예월의 2배까지 가능, 장년대출, 운영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 법인 **100억** |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담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통금) 등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별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경락잔금 대출

법원 최초 감정평가액의
최대 **8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